

# 러시아 사라토프 소식

2023 년 12 월

서영만 , 빈일숙 선교사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

2023년도를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12월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시간들이 살  
같이 빠름을 공감합니다. 한해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 할때면 감사밖에는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언  
제나 그렇듯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섬기는 지교회는 지난 10월 15일 주일에 앵겔스 (사랑교회)와 크라스노 아르메이스  
꼬예 (아름다운교회) 가 연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양식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일깨워 주는 예배  
시간 이었습니다.저희 옆집에 사시는 80세가 넘으신 러시아 할머니께서 10월 추수감사 주일 이후부터 주일예배에 나오십니다. 한영훈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한국어를 모르기때문에 중간 중간 통역을 하면서 참여했는데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 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어려워 하는데 봉고차가 있으면 봉고차로 모셔와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름에 농사 짓는다고 힘들게 일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드셔서 걸을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서 기도하면서 땀을 땀주면서 치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지셨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셨던 성도님 남편분도 이제는 회복되어 혼자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지에 주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이 더욱더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이런 치료 사역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섬겨 주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뜸치료 사역



추수 감사 예배 10월 22일 주일



10월 29일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10월 29일 예년보다 한달이나 빠르게 첫눈이 내리고 겨울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을의 풍성함이 있는데 현실은 추운 겨울입니다. 올해는 지붕에 철 스토틀을 교체하려고 준비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비가오더니 영하의 날씨가 되어서 지붕에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31-부터 11.2일 까지 모스크바에서 한글학교 교사연수가 있어서 연수회에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10.31-11.2일 한글학교 모스크바 교사연수 에서

10월 29일 밤 내렸던 첫 눈



소비에트 스키에 있는 (새생명 교회) 자체적으로 자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지인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한달에 2번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도 따로 따로 하고 있으며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추수감사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하여 은혜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새생명교회 추수감사예배



2023년 10월 새생명교회 추수감사예배



2023년 10월 새생명교회 성탄절예배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해오던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역을 올해에도 7가정을 도왔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시에서 저희에게 7가정을 허락했기에 7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열매는 아직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에게도 열매가 맺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교회 전도사님께서 4년동안 심방하며 교재했던 러시아 분이 올 성탄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에서도 2명의 청년이 3년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었는데 올 가을과 겨울에는 4명의 성도가 새롭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글학교 학생 -  
처음 교회에 나옴

두날개 양육 공부



•저희는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섬기는 3개의 지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2. 서영만 선교사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3. 부족함 없는 물질의 후원과, 파송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열리게 하옵소서
  5. 한국에 있는 진수,진우 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학업중에 있는데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소서
  6. 9인승 봉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70-80 세 되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닐수 있도록)
  7. 지붕 철판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좋은 날씨가 되고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소서
- 0017- 987-808-2145 서영만 선교사

**С НОВЫМ ГОДОМ И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수경노회 김오권 노회장님 임원분들 해외 선교,전도부 임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러시아 사라토프 서 영만, 빈 일숙, 서 진수. 서 진우. 서 진현. 서 한나 선교사 가정 올림